

우리은행 선수들이 6일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삼성생명과의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최은실과 이선화의 가세로 가용인원이 더 풍부해졌다.
아산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우리은행, 신기록보다 기쁜 '백업들의 성장'

〈최소경기 우승 확정·단일 시즌 최고승률〉

바스켓볼 브레이크

위성우 감독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
최은실·이선화 등 가용인원 증가 수확"

'삼성생명 2016~2017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우리은행은 5시즌 연속 통합 챔피언 등극을 노리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역대 최소경기(25경기·24승1패) 우승 확정, 단일시즌 정규리그 역대 최고승률(94.3%·33승2패) 등 2가지 신기록도 작성했다.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라는 지론을 갖고 있는 우리은행 위성우(46) 감독이 정규리그에서 2개의 신기록을 달성한 것보다 더 값진 결과물로 꼽는 것이 있다. 이선화(29·181cm)와 최은실(23·182cm)의 성장이다. 두 선수가 확실한 1군 멤버로서 경쟁력을 보여준 덕분에 우리은행의 가용인원은 눈에 띄게 늘었다. 앞선 4시즌 연속 통합 챔피언 등극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이 부족한 부분에 아쉬움을 드러냈던 위 감독은 올 시즌을 통해 그 같은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


최은실

이선화

최은실과 이선화는 한때 임의탈퇴로 팀을 떠났던 선수들이다. 최은실은 2015~2016시즌을 앞두고 팀에 복귀했고, 이선화는 올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 유니폼을 다시 입었다. 지난 시즌 8경기 출전에 머물렀던 최은실은 올 시즌 34경기에 출전해 평균 20분47초를 뛰면서 6.09점·3.44리바운드·0.47어시스트를 올렸다. 기당 6분여를 뛰면서 2.50점·1.6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정규리그 막판에는 팀에 확실하게 녹아든 모습을 보여줬다.

위 감독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양)지희가 부상에서 완벽히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최)은실이와 (이)선화에게 출전 기회를 주게 됐는데 잘해줬다"며 "이제는 매 경기 10분 정도는 믿고 맡겨도 될 만큼 은실이와 선화가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했다. 이어 "두 선수들의 성장으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난 시즌보다 확 늘어났다. (이)은혜의 부상으로 박혜진도 포인트가드 역할을 맡았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잘 소화했다. 의도치 않게 부상자가 발생한 것이 팀에 가용인원이 늘어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시즌 최대 수확이 아닌가 싶다"며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삼성 선수들이 경기도 용인 죽전의 한 카페에 모였다. 최고참 주희정이 후배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사진출처 | 이관희 페이스북

"어려울 때 더 뭉쳐야" 삼성 '심야 카페 회동'

최고참 주희정 '후배 기 살리기' 한턱

2016-2017 KCC프로농구

프로농구 삼성 선수들은 4일 동부와의 원정경기에서 83-73으로 이겼다. 그러나 경기 내용은 썩 좋지 않았다. 4쿼터에 쏟아진 상대 실책에 편승한 승리였기에 경기 후 용인 죽전에 위치한 숙소(삼성트레이닝센터·STC)로 돌아온 뒤에도 팀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삼성 선수들은 늦은 밤 STC 근처 카페에 모두 모였다. 선수들을 불러 모은 이는 최고참 주희정(40)이었다. 후배들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였다. 주희정은 8일 "요즘 우리 팀 경기력이 좋지 않다보니 후배들이 의기소침해진 것 같더라. 시즌 중이니 술을 한 잔 할 수는 없고, 커피나 달달한 음료를 같이 마시고 얘기하면서 기분을 풀자는 뜻에서 카페로 불러 모았다"고 밝혔다. 임동섭(27)은 "힘내라면서 (주)희정이 형이 한턱 쐈다. 요즘 커피 값이 만만치 않은 데다, 우리가 케이크와 빵까지 먹어서 어지간한 회식비 못지않게 나왔을 텐데…"라며 웃었다.

그러나 삼성 선수들의 '카페 회동'은 당장 효과를 보진 못했다. 삼성은 5일 LG와의 홈경기에서 64-91로 완패했다. 이관희(29)는 "희정이 형이 우리를 위해 마련한 자리였는데, 경기에서 이기질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다. 선수들이 좀더 힘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희정은 "시즌을 치르다보면 안 좋을 때도 있게 마련이다. 후배들이 그동안 잘해오지 않았나.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전부 능력 있는 선수들이다. 우승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은 아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잘 뭉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한다. 이 시기를 잘 이겨낸다면 분명 우리 팀은 더 성장할 것"이라며 후배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골프

박인비의 눈은 벌써 도쿄를 향해 있다

복귀 2경기 만에 우승한 뒤 금의환향
"아직 먼 얘기지만 올림픽 2연패 도전"


박인비(가운데)가 8일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와이드앵글 매장에서 팬 사인회를 했다. 박인비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여자골프 2연패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잠실 | 뉴시스

"도쿄올림픽에 다시 한 번 도전해보고 싶다."

1년 4개월만의 우승으로 화려한 부활에 성공한 박인비(29)의 목표는 '여왕'보다 더 높은 곳을 향했다.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사상 첫 여자골프 올림픽 2연패다.

박인비는 5일 싱가포르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8개월의 공백을 깨고 복귀 2경기 만에 우승을 신고하며 완벽한 부활을 알렸다. 우승트로피를 안고 금의환향한 박인비는 8일 서울 잠실 롯데백화점 와이드앵글 매장에서 열린 팬 사인회에 참석해 모처럼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에서 박인비는 3년 뒤 2020도쿄올림픽에서 "2연패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먼 얘기다. 대표팀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좋은 목표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올림픽 2연패를 생각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인비의 말이기에 더 힘이 실린다. 그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여자골프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2013년 메이저대회 3연속 우승(63년 만에 작성), 2015년 아시아선수 최초 커리어 그랜드슬램(역대 7번째)을 달성한 데 이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선 116년 만에 올림픽무대로 복귀한 여자골프의 금메달을 차지하며 '골든 그랜드 슬램'의 쾌거를 이뤘다.

이번 HSBC 위민스 챔피언스 우승으로 다시 한 번 저력을 보여줬다. 박인비는 지난 한 해 동안 부상에 시달렸다. 6월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가 8월 리우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거는 투혼을 발휘했지만, 투어로 복귀해 예전의 실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스스로 우려를 깼다. 박인비는 "올 시즌을 시작하면서 골프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솔직히 이전의 레벨로 다시 칠 수 있을까 스스로 의심이 들기도 했다. 우승이 의심을 해결했고, 내 자신을 증명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퍼트감각 회복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박인비는 "매번 (HSBC 위민스 챔피언스) 4라운드처럼 퍼트할 수는 없다. 경기 전체를 보면 1라운드 때는 70%, 2라운드 때는 60%였다면, 4라운드는 99%였다"며 "이런 경기가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와도 좋겠고, 그게 메이저대회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인비는 HSBC 위민스 챔피언스 4라운드에서 5개 홀 연속 버디를 기록하는 등 신들린 퍼트를 선보였다. 퍼트수는 27개에 불과했다.

'박인비표 컴퓨터 퍼트'의 비결은 '집중'과 '무관심'이다. 그는 "퍼트가 잘 될 때는 집중력이 좋다. 반대로 잘 안 될 때는 뭘 해도 안 된다. 이유가 없는 듯 하다"며 "대신 안 된다고 해서 깊게 고민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고 자신만의 비결을 공개했다.

메이저대회 우승에 대한 목표도 확고히 했다. 박인비는 "많은 팬들이 에비앙 챔피언십의 우승을 기대하고 있다. 2012년 우승한 경험이 있지만, 메이저대회로 승격된 뒤에는 우승해보지 못했다. 쉽지 않겠지만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박인비는 12일 미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시즌에 돌입한다. 17일 개막하는 파운더스컵을 시작으로 기아클래식, 그리고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에 연속 출전한다.

잠실 |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한국여자골퍼들 해외 최다승 새 역사 쓸까

〈한 시즌〉

박인비 비롯 LPGA 3경기 연속 우승
안선주 JLPGA 개막전 제패 출발 굿
2015년 '32승 합작' 기록 경신 기대

한국여자골퍼들의 승전보가 쉬지 않고 울려퍼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 연이어 터진 우승 소식에 2017년 역대 최다승 합작이라는 새로운 기록 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개막한 데 이어 이달 2일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가 새 시즌에 돌입했다. 개막전으로 펼쳐진 다이킨 오키드 레이디스에서 5일 안선주(30)가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상쾌한 출발을 알렸다. 같은 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선 박인비(29)가 투어 복귀 2경기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박인비를 비롯해 LPGA 투어에선 3경기 연속 한국선수들이 우승했다.

이 같은 분위기라면 해외(LPGA·JLPGA 투어)에서 역대 최다승 합작이라는 새 기록을 기대할 만하다. 한국선수들이 해외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때는 2015년이다. LPGA 투어에서 15승, JLPGA 투어에서 17승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LPGA 투어에서 9승에 그치는 바람에 26승(JLPGA 17승) 합작으로 마무리됐다.

●박인비 부활에 박성현 합류로 막강 전력

올 시즌 초반 분위기는 2015년을 넘어 역대 최다승 합작의 기대를 한껏 드높이고 있다. 3월 초까지 LPGA 투어 3승, JLPGA 투어 개막전 우승으로 벌써 4승을 거뒀다. 특히 올해는 LPGA 투어에서 한 시즌 최다승까지 기대해도 좋을 만큼 막강한 전력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여왕' 박인비 귀환으로 힘이 실렸다. 박인비는 2013년 6승, 2015년 5승을 올렸다. 올해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보여준 실력은 전성기를 떠오르게 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컴퓨터 같다'는 퍼트가 완벽함을 되찾았다. 박인비는 타고난 감각을 바탕으로 자로 잰 듯 정교한 퍼트를 한다. 박인비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인 일명 '눈물 퍼팅'은 공이 홀 앞에서 멈출 듯하다가 눈물처럼 홀 안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붙여졌다.

박성현(24)의 합류도 힘을 더한다.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7승을 쓸어담은 박성현은 올해 LPGA 투어로 무대를 옮겼다. 그리고 적응기간도 없이 데뷔전으로 치른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3위에 오르며 위협적인 모습을 과시했다.

기존 선수들의 실력은 여전하다. 호주여자오픈 우승자 장하나(25)와 혼다타일랜드 우승자 양희영(28)을 비롯해 김세영(24), 전인지(23), 유소연(27), 최운정(27), 최나연(30), 이미향(24) 등 당장 우승이 가능한 선수들이 즐비하다.

올해 대회가 더 많아져 우승 기회가 늘어났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LPGA 투어에선 올해 4개 대회가 신설됐다.

●1988년생 앞세워 20승 도전

JLPGA 투어에선 2015년과 2016년 한국선수들이 잇달아 17승을 합작했다. 올해도 그 이상의 활약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선주의 개막전 우승은 신호탄이다. JLPGA 투어에서 한국선수들은 두려운 존재다. '1988년생 동갑내기' 이보미, 김하늘, 신지애, 그리고 베테랑 전미정(35)과 이지희(38)가 여전히 건재하다. 특히 이보미는 최근 2년 동안에만 12승을 휩쓸었다. 3년차에 접어든 김하늘은 지난해 2개의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적응을 마쳤고, 신지애는 2014년 JLPGA 투어로 무대를 옮긴 뒤로만 10승을 달성했다.

여기에 KLPGA 투어에서 4승을 올린 이민영(25)과 윤채영(30), 그리고 틈틈이 일본무대를 뛸 안신애(27)도 우승을 노려볼 만한 실력파다. 아직 우승을 신고하지 못했지만, 배희경(25)과 정재은(27)도 올해는 우승을 위해 더욱 뜨거운 샷을 날리고 있다.

주영로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